

DDA, 2005년 5월 농업협상 동향

지난 5월 3일부터 4일까지 파리에서 OECD각료회의가 열렸다. 이를 계기로 WTO 회원국들은 소규모 각료회의를 가지고 그동안 협상 진전의 걸림돌이었던 종가세 상당치(AVEs: Ad Valorem Equivalent)에 대해 합의를 도출하였다. 한편 수입국 그룹인 G10은 5월 2일 각료회의를 개최하고 수입국의 입장을 담은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1. G10 공동 성명서 채택

G10 국가들은 공동 성명서를 통해 현재 주요 5개국(FIPs: Five Interested Parties)에 의해 주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농업협상의 진행 방식을 비판하고 협상이 보다 투명하면서도 그룹간 이해를 골고루 반영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협상의 세 분야에서 비교역적 관심사항(NTCs: Non Trade Concerns)을 반영하는 것이야말로 공정하고 형평성을 갖춘 협상이 될 수 있는 요건을 강조하며 각 의제에 대해서 언급하였다.

국내보조 분야에 대해서는 블루박스과 그린박스가 국내 농정개혁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강조하였으며, 현재 보조금 지급액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보았을 때 많이 지급하고 있는 나라들이 보조금 감축에 더욱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수출경쟁 분야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의 수출보조도 철폐되어야 하지만 개도국에 대한 우대조치를 감안할 필요성이 있다고 언급하였다.

수입국들이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는 시장접근분야에 있어서는 관세감축 공식, 민감품목 등 의제별로 보다 자세하게 언급하였다. 수입국들은 관세 감축공식으로서 평균 선형방식이 NTCs를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주장하였으며, 민감품목에 대한 논의가 일반 품목의 관세감축에 대한 논의와 같이 이루어져야 하며 민감품목의 선정에 있어서 회원국들의 자율성이 확보되고 대우 수준도 각 국의 수급 사정을 고려하여 신중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 외에도 G10은 농업협상에서 개도국에 대한 우대조치 방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다룰 용의가 있으며, 이를 위하여 연대하고 공조를 강화할 의사가 있음을 밝혔다.

2. 종가세 상당치 전환방식 합의

미국, EU를 비롯한 주요 5개국(FIPs: Five Interested Parties)들은 시장접근 분야에서 논란이 되었던 기술적인 문제, 즉 종량세를 종가세 상당치(AVEs: Ad Valorem Equivalent)로 전환하는 방식에 대해 합의를 도출하였다.

이들 국가들의 통상 관료들은 AVEs에 관해 합의를 이룸으로써 앞으로 농업협상과 비농업분야 협상의 시장접근분야에서 중요한 문제들에 대하여 논의를 시작하게 되었다고 언급하였다. 미국의 무역대표인 Rob Portman은 AVEs 합의가 협상을 “열정적이고 활발하게” 진행되도록 하였다고 평가하면서 12월에 있을 홍콩각료회의가 성공할 수 있도록 7월말까지 협상이 계속해서 진전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언급하였다.

Portman은 5월 4일 기자들에게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농업협상의 진전이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비농산물 분야나 서비스 협상 등 DDA협상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우려하였다.”고 언급한 바 있다.

FIPs간의 합의 결과는 OECD 각료회의를 위해 모인 약 30개국 각료들의 미니 각료회의에서 논의되었고 현재는 나머지 WTO 회원국들 사이에서 인정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지만 파리 각료회의에서 합의가 이루어진 만큼 이는 큰 문제는 아닐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AVEs에 관한 합의결과는 5월 4일에 이루어진 FIPs회의에서 EU가 제시한 제안서에 기초하고 있다. EU의 무역 집행위원인 Peter Mandelson은 합의 결과가 EU의 제안서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고 하면서 이는 호주나 브라질과 같은 수출국들의 요구사항과 EU의 희망사항간의 타협이 이루어진 결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합의된 방식에 따라 회원국들은 종량세를 종가세 상당치로 바꾸게 된다.

수출국들은 당초에 종가세 상당치를 높게 산출할 수 있는 방법을 지지하였는데 이는 높은 관세일수록 많이 감축해야 하기 때문이다. 반면, EU는 종가세 상당치를 낮게 산출하여 낮은 감축률을 적용받고자 하였다.

세번상 1류에서 16류에 해당하는 쇠고기나 밀과 같은 품목들의 종가세 상당치를 계산할 때는 Comtrade자료를 82.5%, IDB자료를 17.5%의 비율로 가중 평균하여 수입가격을 산출한 다음 조정된 수입가격을 AVEs 계산에 이용해야 한다. 17류 이상인 가공 농산물들의 가격을 산출할 때에는 Comtrade자료를 60%, IDB자료를 40%의 비율로 가중평균 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Comtrade자료에 기초한 세계시장가격은 IDB자료를 이용하여 계산된 각국의 수입단가보다 낮다. 1차 농산물들에 대해서는 세계시장 가격에 높은 비중을 두었으므로 해당 수입가격이 낮아지게 되고, 낮은 가

격을 이용해 산출한 AVEs는 상대적으로 높아지게 된다.

결국 세계시장가격에 높은 비중을 두어 계산한 1차 농산물은 상대적으로 높은 감축률을 적용받게 될 것이고 이에 비해 가공 농산물은 1차 농산물에 비해 높은 가격을 적용할 수 있으므로 종가세 상당치가 낮아 상대적으로 감축폭이 작아지게 된다.

설탕에 대해서는 FIPs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향후 논의 대상이 되었으나 설탕을 제외한 기타 blips 품목은 위의 합의사항에 따라 종가세 상당치를 산출해야 한다.

AVEs에 관한 합의를 도출하기까지의 경과를 살펴보면, 호주와 브라질은 당초 예외 없이 모든 품목에 대해 세계시장가격과 수입가격을 각각 90대 10의 비율로 가중 평균하여 AVEs를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EU는 가중치를 75대 25로 해야 하며 동시에 몇몇 품목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해 주어야 한다고 반발하였다. EU의 제안에 따르면 수입가격의 비중이 커질수록 AVEs가 낮아질 것이며 이런 품목들은 보다 낮은 수준으로 감축할 수 있다.

Mandelson 집행위원은 이러한 기술적 쟁점에 대한 합의가 매우 중요하며 DDA 협상의 모든 분야에서 앞으로 더욱 심도 있게 진행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AVEs에 관한 합의가 단지 ‘출발점’에 불과하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으며 앞으로 농업협상에서 다루어져야 할 문제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음을 지적하였다. 회원국들은 앞으로 관세구간의 개수, 관세감축공식, 민감품목의 선정 기준과 대우 등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

지난 2일부터 4일까지의 3일간 뿐만 아니라 5일에 있었던 미니 각료회의에 이르기까지 회의의 핵심 의제는 농업협상 관련 의제들이었으며 미니

각료회의 중 90분 동안만 여타 협상 의제들에 대해 논의되었다. 그리고 미니 각료회의가 열리기 전에는 FIPs회의와 FIPs-G10회의가 장시간에 걸쳐 이루어져 농업협상의 기술적 쟁점들이 논의되었다.

브라질의 Celso Amorim 장관은 이처럼 회의가 농업협상에 집중되는 것이 WTO 협상을 진전시키기 위해 바람직하다고 언급하였다.

이번 AVEs에 관한 합의 도출은 그동안 배타적으로 이루어졌던 FIPs 회의를 바꾸어 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스위스의 통상장관인 Joseph Deiss는 G10이 FIPs회의에 참석하게 될 것이며 특히 G10 국가들에게 중요한 의제에 관해 논의할 때에는 반드시 참석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Deiss 장관은 FIPs회의가 앞으로는 더욱 신축적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의제에 따라 기존의 미국, EU, 브라질, 인도, 호주를 제외한 다른 나라들도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G10 국가들은 그동안 FIPs에 의해 이루어진 협상 방식이 불투명하다며 비판해왔다. 그러나 G10 국가들이 FIPs 회의에 참여하게 되면서 지난 회의에서 AVEs 합의가 최종단계에서 오해로 인해 무산되었던 것과 같은 일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되고 있다.

3. AVEs 계산 가이드

종량세와 종가세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해당 종량세를 종가세 상당치(AVEs: Ad Valorem Equivalent)로 전환해야 한다.

AVEs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고정된 기간('99-'01) 동안의 수입단가가 필수적이다. 평균 수입단가는 해당 기간동안의 수입액을 수입량으로 나눔으로써 구할 수 있다. 종량세를 계산된 수입단가로 나누어주면 해당 종량세

가 증가세로 몇 퍼센트에 해당하는지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어떤 품목의 세율이 kg당 1000원이고 1999년부터 2001년 사이의 평균 수입단가가 kg당 500원이었다면 이 품목의 AVE는 200%가 된다.

원칙상 수입단가는 WTO의 공식 데이터베이스인 IDB(Integrated Databases)의 자료를 이용하여 계산하여야 하지만 일부 품목의 자료는 해당 국가의 수입가격을 대표한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저율관세할당 물량(TRQ: Tariff Rate Quota)이 설정된 품목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가격왜곡이 실제로 존재하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IDB자료를 이용한 수입가격을 대체 자료인 UN의 Comtrade자료를 이용한 수입가격과 비교해 보아야 한다. 만약 두 자료를 이용하여 계산된 수입가격간에 차이가 크게 나지 않는다면 IDB자료를 이용한 수입가격을 이용하여 AVEs를 계산할 수 있다.

회원국들은 앞에서 언급한 가격차의 존재 여부를 알기 위해 “40-20 필터”라고 불리는 방법을 채택하였는데 40-20 필터는 두 단계로 이루어진다. 먼저 IDB를 이용하여 계산된 수입가격과 Comtrade를 이용하여 계산된 수입가격의 차이가 40%이상 나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만약 두 개의 가격차가 40%이상이라면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야 한다. 각각의 가격자료를 이용하여 AVEs를 계산한다. 그리고 계산된 AVEs를 비교하여 두 자료간의 차이가 20%미만이라면 IDB자료를 이용하여 계산된 수입가격과 AVEs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만약 두 AVEs 간의 차이가 20%이상인 품목이 있다면 이 품목들을 필터에 걸린 품목들이라 하며 별도의 방법을 이용하여 차이를 조정해야 한다. 필터에 걸린 품목들의 수입가격은 IDB자료와 Comtrade자료를 적절히 사용하여 계산한다.

표 1 협상 그룹 현황

Cairns Group	G-20	EC - US	G-35
Argentina* Australia Bolivia* Brazil* Canada Chile Colombia* Costa Rica* Guatemala* Indonesia* Malaysia New Zealand Paraguay* Philippines* South Africa* Thailand* Uruguay *These countries have overlapping memberships with the G-20	Argentina Bolivia Brazil Chile China Cuba Egypt India Indonesia Mexico Nigeria Pakistan Paraguay Philippines South Africa Thailand Tanzania Venezuela Zimbabwe	Austria Cyprus Czech Republic Belgium Denmark Estonia Finland France Germany Greece Hungary Ireland Italy Latvia Lithuania Luxemburg Malta Netherlands Poland Portugal Slovak Republic Slovenia Spain Sweden United Kingdom United States	Antigua and Barbuda Barbados Belize Botswana Cuba Dominican Republic Grenada Guyana Haiti Honduras Indonesia Jamaica Kenya Korea Mauritius Mongolia Nicaragua Nigeria Pakistan Panama Peru Philippines Saint Kitts and Nevis Saint Lucia Saint Vincent and the Grenadines Suriname Tanzania Trinidad and Tobago Turkey Uganda Venezuela Zambia Zimbabwe. (China*) (India*) *These countries (formal G-20 members) are actively participating in G-33 meetings and support the Group in the negotiations.
Recently Acceded Members Albania China Croatia Georgia Jordan Moldova Oman	G-10 Bulgaria Chinese Taipei Iceland Israel Japan Korea Lichtenstien Switzerland Mauritius Norway	AU/ACP/LDC This is a Combination of the 54 African Union countries, 77 ACP countries and 49 LDCs, which are members of the WTO.	

주: 불가리아는 지난 4월부터 G10에서 배제됨.

1차 농산물의 수입가격은 Comtrade자료를 82.5%, IDB자료를 17.5%의 비율로 가중평균하여 구하고 가공농산물의 수입가격은 Comtrade자료를 60%, IDB 자료를 40%의 비율로 가중평균한다. 단, 설탕의 수입가격을 구하는 방법은 향후의 논의과제로 남아있다.

AVEs 계산결과는 각 세번들이 어떤 감축구간에 들어가는지를 결정하는데 이용될 것이며 실질적인 감축은 종량세로 표기된 현행 양허세율을 기준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임소영 Isyjr@krei.re.kr 02-3299-4250 한국농촌경제연구원)

KREI